

넘을 산 많은 협상에 '개성' 추가 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둘째날인 24일 양측은 한미 FTA가 연내에 타결될 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인 무역구제 분과 회의를 개시했다. 일단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과 함께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인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가 소강 상태에 빠진 데 이어 무역구제마저 진전을 못 이룰 경우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양측은 전날 파행을 빚었던 상품무역 분과를 재개하기로 하고 덜 민감한 문제부터 정리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지속했다. 특히 농업분과의 경우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둘러싼 원칙적인 합의에 합의에 관세 개방안(양허안)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 한·미 FTA 4차협상 이틀째

◇ 무역구제 '연내 타결의 분수령' = 미국은 '무역측진권한법'(TPA)을 통해 무역구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면 18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 시험이 내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무역구제 관련 FTA 협상은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관세 개방안 등 다른 주요 쟁점 현안은 90일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무역구제 만큼은 연내에 기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해왔으며 지난 81년부터 작년까지 25년간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6.8%에 해당하는 373억달러 상당의 물품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규제를 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은 한미FTA를 통해 우리측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이다.

연내 타결 분수령은 '무역구제'

◇ **美 자동차 안전기술작업반 설치 상설화 요구** = 미국은 자동차분야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폐지 등에 이어 안전기술 작업반의 상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자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시장에 기술표준의 변경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적 협의 채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협상단은 "기준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불필요하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美 농산물 '세이프 가드' 원칙적 합의

◇ **관세개방 수정안 협상 다소 탄력** = 미국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면서 농산물 관세개방을 둘러싼 양측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경우 당초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최대 100여개 품목을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고 기타 품목중 일부도 줄여 이번 협상기간 미측에 제시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미측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의 방향 등 공산품 관세개방안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날 파행을 빚었던 상품무역 분과 회의가 속개됐다. 미측은 1천개 전후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추가로 조정할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 협상단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이틀째인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농협 주차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한미FTA 반대 시위대가 협상장인 제주 신라호텔 방면으로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반대시위, 경찰과 충돌...부상자 속출

한미FTA 제4차 협상 이틀째인 24일 협상장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입구 등 시내 곳곳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시위대와 경찰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대 1천여명은 이날 낮 12시10분께 협상장 인근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농협 하나마트 앞에서 대형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중문관광단지 입구 천제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하루 술 1~2잔 '심장병' 위험 낮춰

술을 하루 1~2잔 마시면 건강한 사람도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스턴 소재 '베트 이스라엘 여전도사회 의학센터' 연구팀은 건강사(史)를 다년간에 걸쳐 추적한 대형 연구에 참여한 9천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내과 의학' 최신호에 보고했다. 이 남성들은 비흡연, 비과체중이며 매일 최소 30분 운동하고 과일, 야채, 생선, 고도불포화지방은 많고, 트랜스지방과 붉은 육류는 적은 식사를 했다.

“아버지, 일기 쓰셨을 것”

아들 윤홍씨도 '최규하 비망록' 존재 가능성 언급

고인이 된 최규하 전(前) 대통령의 비망록 존재 여부에 세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망록 형식을 띤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점차 실리고 있다.

최 전 대통령의 장남 윤홍씨는 23일 지인들에게 "아들로서 부모가 일기를 쓰는지 물어볼 만한 성질이 아니라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일기를 쓰셨을 가능성은 있다"며 원론적으로 비망록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에서 마련된 최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최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일 등을)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모두 기록했을 것"이라며 "비망록이든 회고록이든 (그 기록이) 발표되면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다"고 비망록 존재 가능성을 언급해 시선을 끌었다.

1990년대 중반 12.12 및 5.18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한나라당 장윤석(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의원도 이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 전 대통령) 회고록이나 비망록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이른바 '최규하 비망록'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와 관련, 최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한 최홍순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돌아가신 뒤 최 전 대통령의 서재를 열어서 사적이 없었는지 개인적 기록이 담긴 쪽지가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前대통령 첫 안장...8명까지 안치 가능

■ 국가 원수 묘역 어떤 곳

고(故)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의 유해가 오는 26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되는 가운데 국가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들의 영면 장소인 국가원수 묘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원수 묘역은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장군 제1묘역과 국가유공자 묘역 중간 위치에 2004년 6월 조성됐으며 이번엔 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장된다.



묘역은 상·하 2개의 단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1개의 단에 4명의 국가원수가 안치되도록 꾸며져 모두 8명의 국가원수(유족 요청시 영부인 합장가능)를 모실 수 있다. /연합뉴스

실형 선고받고...소송 취말리고

'부도덕한 CEO'들 비참한 말로

지난 2001년 회계부정 스캔들로 붕괴한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전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킨링(52)이 23일 사기와 공모 등으로 24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부도덕한' CEO의 말로가 어떤 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미 CNN머니 인터넷판은 23일 스킨링에 대한 중형 선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2001년 이후 회계 사기 등 '화이트 칼라'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복역 후 출소한 CEO,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CEO 6명을 소개했다.

▲ **버나드 에버스(64)** = 장거리 전화회사 월드컴의 전 CEO. 110억 달러 규모의 회계 사기 사건에 개입한 죄로 작년 7월 25년형을 받고 연방 형무소에서 복역 중

이다. 월드컴을 미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지목돼 미시스코의 저택 등 4천500만 달러 상당의 재산 몰수 명령을 아물려 받았다.

그의 형량은 경제전문지 포천 선정 500대 기업에서 '기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CEO 들 중 최장기형으로 기록됐다. 나이로 미워 죽을 때까지 수의를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마사 스투이트(65)** = 마사 스투이트 리빙 유니미디어의 창업주로 '살림의 여왕'으로 불린다. 2001년 말 함양제 '어비투스'로 유명한 생명공학업체 임플론 주식 매각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롱나 철창 신세를 졌다.

헝가리 반정부 시위 격화

“페렌츠 총리 사임·개혁조치 철회하라”

도심 곳곳 경찰과 충돌... 100여명 부상

헝가리 혁명 50주년을 맞은 23일 오후(현지시간)부터 부다페스트 도심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와 경찰 100여명이 다치는 등 혁명 기념일이 폭력시위로 얼룩졌다.

이날 정부의 공식 기념 행사장인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경찰에 의해 쫓겨난 일부 시위대는 이후 수천명으로 불어나면서 24일 새벽까지 시내 도로 곳곳에서 주르차니 페렌츠 총리의 사임과 개혁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이 행진하는 시위대를 제지하자 곳곳에서 몰차음과 투석전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을 사용하며 진압에 나섰다.

MTI 통신은 경찰 진압 과정에서 1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40명을 체포했다.

일부 극우주의자와 홀리건 등이 중심이 된 시위대는 혁명 당시 소련군의 무력진압을 상징하기 위해 부다페스트의 한 거리에 기념물로 전시해 놓은 1950년대 소련제 T-34 탱크를 탈취, 경찰서까지 100여m를 끌고가다가 제지되기도 했다.

또 수백명의 시위대는 밤 늦게부터 다뉴브강을 가로지르는 에르제베트 다리의 페스트 쪽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 이 지역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날 과거 시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헝가리의 친 나치 정부가 사용하던 깃발이 등장했으며, 일부 스킨헤드족들이 도심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SONY 광주전시장 새만장 기념 사은행사

1월 7일 ~ 2월 11일 신제품 46" TV 출시기념 구매고객께 백업이외엔 or 2인용주머니 증정

1월 7일 ~ 2월 11일 디지털카메라 구입고객에게 감격대 증정(50대 한정)

1월 7일 ~ 2월 11일 소나 DSR(A100) 구매고객에게 무심한 사은품 증정

10월 주말만정 초특가 SALE

1월 7일 ~ 2월 11일 TV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10% 할인판매

1월 7일 ~ 2월 11일 디지털카메라 구매고객께 케부라+가방증정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최신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수요 충족

- 기존 300kg급의 중량복원
- 작업장 및 인약지반의 안전성 확보
- 기존사업용 장비에 비해 성능향상 20%
- 동일 크기의 장비

유연한 공법적 대응성

- 기존 공법 대비 20% 이상
- 기존 공법 대비 20% 이상
- 기존 공법 대비 20% 이상

유연한 공법적 대응성

- 기존 공법 대비 20% 이상
- 기존 공법 대비 20% 이상
- 기존 공법 대비 20% 이상